

7월5일(월)/로마서1:24~26

제목: 한계를 넘지 말고 빨리 돌아갑시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불의를 행하고(18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스스로 포기하고(20절), 우상 숭배 하는 사람들(23절)에 대해서는 ‘내 버려두시는’ 속성이 있으시다(24절). 하나님은 끊임없이 정욕대로 살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버려두시는데 어디에 버리시는가? ‘더러움’에 버려두신다.(24절). 바울은 하나님이 더러움에 계속 몸을 뒹굴고 살도록 내 버려두시는 사람은 ‘우상숭배자’들이라고 한 번 더 강조한다(25절). 여기서 중요한 말은 “내 버려두사”(24절)라는 말이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정욕대로 삶을 일관하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양심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다. 그럼에도 끝까지 그 말을 듣지 않으면 그는 은총 밖으로 밀려나게 된다. 그래서 ‘버림받은 자’는 그 때부터는 더러움에 뒹굴면서도 더러운 지도 모르고 무감각한 채로 살아가게 된다. 어떤 의미에서는 죄도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짓는다. 만일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치시면 죄를 짓지 못한다. 어떤 의미에서는 죄도 은총 속에서 짓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유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안에 빨리 뉘우치고 돌아오라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한계를 넘지 말고 빨리 돌아오는 것이다.

7월6일(화)/로마서1:26~27

제목: 신앙이 병들면 성적 타락이 옵니다.

“이 때문에”(26절)라는 말은 앞 절에서의 우상숭배자들의 행위를 가리킨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내어 버리신다(26절). 그 결과 사람은 엄청난 도덕적 타락에 빠지는데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성교를 하고 남자는 남자와 더불어 성교를 하는 동성연애가 창궐하게 되었다(26~27절). 이 동성연애는 당시 헬라 세계에서 널리 행되던 것이었다. 하나님이 버리시는 순간 사람은 동물이 되어버린다. 정상적인 사람은 부끄러운 짓을 하면 부끄러워한다. 그런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즐긴다. 신앙과 이성이 병든 사람은 부끄러운 짓을 오히려 영웅으로 생각한다. 바울은 이 동성애는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고 한다(27절). 그것은 에이즈라고 하는 구제할 수 없는 질병이다. 성경은 성적 타락의 원인을 신앙적인 죄에서 찾았다. 신앙이 병들면 도덕 불감증에 걸린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고치기 전에 신앙을 점검해야 한다. 굳어짐을 면해야 한다. 하나님께 버려지기 전에 회개해야 한다. 귀에 들릴 때에 돌이켜야 한다. 버림받은 지경에 이르면 동물로 전락하게 되고 곧 끝이 오고야 만다.

7월7일(수)/로마서1:28~32

제목: 신앙이 병들면 인격이 파괴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우상을 숭배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리신다(28절) 상실한 마음이란 인간성 파괴를 의미한다.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지 않는 우상숭배자들을 결국 인간성이 파괴된 채로 살아가도록 내버려두신다. 그 파괴된 인간성에서 나오는 죄의 목록은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 부모 거역, 우매함, 배약, 무정, 무자비이다(29~31절). 하나님은 우상숭배자들에게도 계속 사랑의 권면을 하시다가도 어떤 한계에 돌입하면 그들을 돌이키지 않으시고 파괴된 인간성으로 살도록 내버려두신다. 이것은 인간의 성품에 내리는 심판이다. 그리고 그렇게 가다가 결국 그들은 ‘사형’을 당하게 된다(32절). 여기서 사형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한다. 우리도 심령에 하나님이 없을 때 반항하는 자가 되고 그 무서운 결과로 이런 인간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자는 바로 살아가려고 해도 하루도 가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행위보다 하나님을 마음에 채우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결심보다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다.

7월8일(목)/로마서2:1~11

제목: 먼저 믿은 자가 손해 봅니다.

“환란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9절)라는 말은 유대인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첫 번째라는 뜻이다. 왜 그런가? 유대인은 남보다 먼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 줄로 생각하느냐”(1~3절) 이 구절도 유대인을 가리킨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이유는 남을 판단하는 죄 때문이었다(1~3절). 비판과 판단은 항상 뭔가를 잘 아는 사람이 한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먼저 알았다는 것이 화근이다. 유대인들만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참으심을 잘 아는 민족도 없다(4~5절).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악용하였다. 그러므로 그들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쌓여만 갔다(5절).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이 더 큰 화로 돌아왔다. 그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과 율법과 심판과 은혜에 관해서 알았다. 이렇게 먼저 알았기에 똑같은 죄를 지어도 모르고 지은 자와 그 중량감이 다르다. 심판은 하나님에 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성인에게 먼저 떨어진다. 모르고 죄를 범한 자는 앞으로 그것을 알게 될 때까지 심판은 유보된다. 먼저 믿은 우리가 복도 우선으로 받지만 심판도 우선으로 받는다.

7월9일(금)/로마서2:12~16

제목: 예수 이전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성문화된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12절). 그러면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이나 율법 이전 세대의 인류는 어떤 기준으로 심판을 받는가? 성경은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한다고 하였다(12절). 그리고 “자기가 자기에겐 율법이 되나니” (14절)라고 말한다. 이 말은 사람 스스로가 알고 있는 본성의 법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뜻이다. 그 본성이란 바로 양심이다(15절).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간음하지 말라고 기록한 율법을 우리는 몰랐기 때문에, 그런 법이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말을 못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에게에는 양심이 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사람의 양심이라는 것이 많이 더러워졌지만 없다고는 말을 못한다는 것이다. 양심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서는 안 되는지 다 알고 있다. 그러므로 몰랐다고 핑계를 댈 수 없다. 복음이 전해지기 전,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 모든 인류는 이 양심의 법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이들은 기록된 율법, 십계명만 없었을 뿐이지 마음에는 본성적으로 법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안산제일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47-2(중앙동 7단지 뒤)
Tel.(031)485-0955~7 Fax.(031)401-2370